

# KB손해보험 신(新)의료기술 보장 4종 탑재 KB암보험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표적항암방사선치료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등 신(新)의료기술에 대한 보장 4종을 모두 탑재한 KB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4가지 신(新)의료기술을 모두 보장하는 회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가 필수적으로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출시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올해 보험업계의 첫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통틀어 KB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지난해 5월 출시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에 최신 의료기술인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를 새롭게 탑재해 보장의 폭을 한층 더 강화한 암보험이다.

최근 진행성 간암이나, 폐암 등 전신으로 급격하게 퍼지는 공격성이 높은 암에 대해 항암약물을 통한 전신치료와 방사선을 통한 국소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와 더불어 '표적항암방사선치료'를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개발된 '표

적항암방사선치료비'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를 보장한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정해, 환부와 정상세포 간의 방사선량 분포를 차별화함으로써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으로, '토모테라피', '래피드아크', '트루빔'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 치료한다.

KB손해보험의 암보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기존 월평균 2억원 수준이던 암보험 신규 매출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출시 직후인 지난해 6~7월에는 월평균 16억원으로 무려 8배나 증가했다. 또 출시 후 지난달까지 33만6천명의 고객이 KB손해보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선택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장은 암보험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이번 상품 출시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소비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치료 효과를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집중했다"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⑦

##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무)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손해보험협회 식의필 제38165호 (2021.01.1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계약한금액(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